

해남군,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속도

내년 친환경부표 110만개 보급 신규 설치 제한 어장관리법 개정

해남군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한다.

어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은 올해 지난해보다 230% 증가한 34만개의 친환경 부표를 보급했다.

이를 위해 군비 보조율을 10% 늘려 38%까지 확대하고, 국도비 42%를 더해 총 80%까지 지원을 해 어업인 부담을 20%까지 낮췄다.

친환경 부표 지원율을 80%까지 높인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군은 내년도 국비 예산도 추가 확보해 친환경 부표를 330% 증가한 110만개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군은 양식장 등 어장에서 이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해남군은 미세플라스틱 배출이 없는 친환경 부표를 어가에 공급해 환경오염을 막고 있다. <해남군 제공>

최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 13일부터는 수하식양식장(김, 굴 등) 내에서, 공포 후 2년 뒤인 2023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단 기존에 설치한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규로 설치하는 부표는 친환경부표만 사

용할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어장 내 친환경 부표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 해오고 있다"면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망골 정정바다의 친환경 수산 양식 확산과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발전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보배섬 진도 홍보해 주세요”

제4기 SNS 서포터즈 모집 SNS 운영 20명 내외 선발

진도군이 '2022년 제4기 SNS 서포터즈(기자단)'를 모집한다.

진도군 SNS서포터즈는 보배섬 진도군의 문화, 관광, 행사 등 군의 다양한 이야기와 유용한 소식 등을 취재해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오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중 1개 이상의 개인 SNS를 운영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20명 내외를 모집한다.

특히 SNS 활동을 활발히 하고 사진 촬영과 편집, 포스팅 능력이 우수한 지원자 위주로 선발할

방침이다.

지원은 오는 20일까지 진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2022년 12월31일까지이다.

서포터즈활동 혜택은 서포터즈증 발급, 활동 우수자 포상, 취재 기사·영상·사진이 채택될 경우 원고료가 지급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SNS서포터즈는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감 있고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보배섬 진도군을 알릴 수 있는 서포터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영암 대불산단 치안협의회체 발족

영암경찰서, 사회 안전망 확보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치안협의회가 발족했다.

영암경찰서는 지난 30일 대불산단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대불산단 치안협의회 발대식을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발대식에는 서태규 영암경찰서장을 비롯해 전동평 영암군수, 고창희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대불산단 치안협의회는 만성적 주차난과 조선경

기 호황에 따른 외국인 불법체류자 유입 증가 등 위협요인을 해소하고자 발족했다.

협의회는 교통안전·외사치안·생활안전 등 3개 분야에 34개 과제를 제시했다.

서태규 영암경찰서장은 "다양한 치안수요가 밀집된 대불산단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경·관·민이 삼위일체가 된 상시적·항구적 치안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신안 '퍼플섬' 보랏빛 트리로 연말 분위기 '물씬'



지역 관광명소인 신안 반월-박지도에 퍼플 산타클로스과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이 설치됐다. 보랏색 옷을 입고 있는 4m 높이의 퍼플 산타와 5m 높이의 크리스마스트리는 보랏색 조명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퍼플산타와 크리스마스트리는 내년 1월 말까지 퍼플섬의 밤하늘을 보랏색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신안군 제공>

완도해경, 해양오염 방제 소식지 제작 배포

완도해양경찰서가 국민에게 해양경찰서 해양오염 방제업무를 알리고 민간 방제세력과의 협업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해양오염방제 소식지 '반하다'를 자체 제작했다.

제호 '반하다'는 '반갑게 마주 잡은 두 손, 하나

되어 다 함께 깨끗한 바다를'에서 글자를 따와 지은 것이다.

소식지 '반하다'는 청정바다 완도를 지켜나가기 위해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주관으로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 해양자율방제대,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자원봉사자 등 운용 중인 민간방제 세력 소개 ▲ 방제장비 종류 및 사용법 ▲ 해양오염 위반 단속·적발 사례가 담겼다.

3000t급 화물선 침몰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 방제 조치사항 등 2021년도 주요 활동상도 안내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오룡 에듀포레 푸르지오 2차

무안군이 오룡 에듀포레 푸르지오 2차 아파트를 무안군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불가하며 3개월의 홍보기간이 지나고 금연지정 장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오룡지구에서만 총 4개의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 환경조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으며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에는 주민의 50% 이상이 동참해 금연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 무안군에서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3452곳이다.

지난 2016년 남악 근화베아체 스위트아파트를 시작으로 남악 3곳, 오룡 4곳에 금연아파트가 조성됐으며 현재 2-3곳의 아파트가 금연아파트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금연아파트 지정 확산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금연 인식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사업으로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동하는 행복무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